

# 해임 지시에도 배짱 거부... 귀 막은 私學

### 광주교육청, 잇단 비리 해임 요구에 몇대로 경징계 승 안서고 통제 불능...관련법 제정 등 대책마련 시급

광주 사립학교들의 비위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교육청의 징계 지시에도 불구하고, 몇대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등 사실상 교육청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연학원은 지난 8월 교사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된 명칭고 교장에 대한 교육청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해당 교장은 교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자녀, 친인척 및

자신의 자녀'가 포함돼 있을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데, 관련 서약서까지 쓰고도 법인 이사장 딸로 임용 후보자에 오른 조카의 심사위원을 맡아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해당 법인은 이후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에도 또다시 견책 처분을 내리며 교육청 지시를 거부하며 버텼고 교장에게 자진 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견책은 경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공립과 달리 사립고교에서

는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사태와 관련, 광주교육청의 사립여고 교장에 대한 해임 요구도 먹혀들지 않았다.

교육청은 학생부 부당 정정 등을 지시한 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지만 사학법인측은 수위를 낮춰 징계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해당 교장은 이후 곧바로 정년 퇴임을 했다.

교육청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진 남양학원에 대한 교육청 요구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은 지난 7월 말 남양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직원 채용 과정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금품 제공 등으로 검찰 수

사 대상에 올랐던 교사 6명에 대한 임용 취소 요구하는 한편, 교직원 채용을 정박하며 금품을 건넨 교직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시 이사가 선정된 이후 여태껏 이사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면서 후속 조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정책을 총괄해야 할 교육청으로서 '영(승)'이 서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사학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 옛 광주학생회관 청소년 진로체험장 변신 다음달 3일 개원

광주 청소년들의 진로체험공간인 '청소년상담디자인센터'가 다음 달 3일 문을 연다.

광주시 동구 중앙로 옛 광주학생독립운동회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사업비 113억원)한 이 센터는 청소년 진로교육의 중추 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부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와 역할 면에서 이 센터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해 지난 1967년 건립된 이 학생회관은 그동안 전시공간과 도서관, 시민·청소년들이 열람실 등으로 이용해왔다.

이후 노후화 등으로 1990년대 들어 이 설이 추진됐으나 수차례에 걸쳐 매각이 무산되며 2013년부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전체면적 5256㎡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인 직업체험센터에는 청소년 진로(직성)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지역 사회 진로교육, 청소년 창업 등을 위한 공간이 들어섰다.

청소년 카페, 공연장, 전시장 등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찾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휴식공간도 조성됐다.

광주시는 개관에 앞서 10월 한 달 동안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공, 요리, 바느질 등 일일직업체험과 청소년이 배우거나 가르치고 싶은 것을 서로 나누는 '배움의 연대-배움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동 부엌,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텃밭, 서로 배움터, 녹음스튜디오, 무용연습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신나는 공굴리기 6일 광주시 서구 용암동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막한 '제10회 광주시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들이 공굴리기 게임을 하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모두 16개 부문에 2200여명이 참가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네팔 오지 다시 찾은 '5·18유족회'

### 지진 피해 산골 학교에 강당 건축...18일 준공식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1년 만에 또 다시 네팔 오지마을을 찾는다. 지난해 봄 네팔을 뒀던 강진으로 무너져내린 산골 오지마을을 사골 학교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다. 5·18유족회는 해외 봉사·나눔 활동의 첫 대상으로 네팔을 선택하고 지난해 가을 붕괴된 교실 일부를 지어준 데 이어 올해는 주민 바람대로 학교 강당을 건립한다.

6일 5·18유족회에 따르면 유족회는 네팔 마담푸어라는 산골 학교 부지에 60㎡(20평) 규모의 강당을 짓고 오는 18일 준

공식을 열 예정이다.

5·18유족회는 선발대로 6일 밤 정수만 전 유족회장을 네팔로 보내 지난날부터 현지 교민의 감독 아래 진행 중인 강당 공사를 점검하고 학교에 줄 책상과 의자를 구매하도록 했다. 11일에는 정춘식 유족회장 등 회원 6명이 100여벌의 옷과 노트 북을 들고 합류한다.

유족회가 연이어 찾은 오지 마을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자동차로 2시간 떨어진 누야코트 지방의 마담푸어라는 산골이다. 마을엔 주민들이 세운 '타라스쿨'이

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결합한 형태의 학교가 있었지만 지난해 4월 지진으로 교실 7칸과 교직원용 기숙사가 모두 붕괴됐다.

학교 뿐만 아니라 진입 도로, 주택 등 마을 전체가 무너져내렸지만 산골 주민들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양철판으로 벽과 지붕을 엮어 배움터를 개설해 학생들의 수업을 이어가게 했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5·18유족회는 지난해 10월 현지로 날아가 교실 4칸을 짓고 세운 300여벌을 건네며 힘을 보탤지만 못내 아쉬움이 남았다고 한다. 사업비 부족으로 무너진 교실 7칸 전체를 새로 지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5·18유족회가 1년 만에 또다시 네팔을 찾은 이유다.

/김홍희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2 해질 18:08 | 달출몰 11:43 달지름 22:16

**우산 챙기세요**  
남부터 흐리다 오후에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15/24	보성	16/22
목포	18/23	순천	17/23
여수	20/22	영광	13/24
나주	14/24	진도	17/23
완도	19/23	전주	15/25
구례	13/22	군산	15/24
강진	17/23	남원	12/25
해남	17/23	속산	19/22
장성	13/23		

**◇비다 날씨**

지역	구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북동~동	0.5~1.0
	면바다	동~남동	1.0~2.5	북동~동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면바다(동)	북동~동	1.5~3.0	북동~동	1.5~2.5
면바다(서)	북동~동	1.0~2.5	동~남동	1.0~2.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31	05:22	23:06	18:00
여수	05:43	12:20	18:30	00:00

**◇주간 날씨**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	☀	☀	☀	☀	☀	☀
17/23	11/19	10/21	12/21	11/21	12/22	12/22

## 또?... 광주·전남 주말 최고 120mm 비

제18호 태풍 '차바'가 활귀고 지나간 광주·전남지역에 또다시 최고 120mm 이상에 달하는 많은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8일 비가 그친 후 중국 북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 5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차바로 전국에서 사망 7명, 실종 3명 등 모두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국적으로 1만ha가 넘는 논밭작물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 문제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정 판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여 명이다. /연합뉴스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섬의 하얀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709실)

※ 기명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금 일시불 납부 시 6% 할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펠리체 승이클럽	가제 이라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9홀) 리조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기명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상수기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객실 회원 요금의 50%

전국 13개 지역 리조트 - 비발디파크(가평/오산/평택/안성/안동) - 소노펠리체 - 델피노 글프 앤 리조트 - 쏘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광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가제 이라나 - 델피노 호텔 여수 - 델피노 호텔 고양

패밀리/스위트 납입계획 | 예금주 (주)대명레저산업 | 지점 계좌로 입금된 입금금만 유효합니다. 우리은행 1005-900-997807 국민은행 614701-04-002581 신한은행 295-05-061967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정성으로!

**초당요양병원**

자연과 함께하는 서비스

-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
- 친절함 믿음의 병원

복지프로그램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환자의 정서 및 육체적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호서비스

- 간호인력의 24시간 간호 서비스 제공
- 투약관리 및 지도
- 호스피스(임종간호)

초당요양병원

치매/뇌졸중(중증)/호스피스/당뇨/고혈압/각종노년성질환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초당요양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97-2

☎ (061) 453-4300  
FAX (061) 453-1119